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공정·혁신공천 총선 승리”

### 당무복귀 최고위원회의 주재 “법·펜·칼로도 죽지 않아 안보·민생 실패 정권 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흥기 피습 사건 보름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해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으로 총선 승리 결의를 다졌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정부, 여당의 경제·안보·민생 정책 실행을 요복조목 지적하며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평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과연 정부 여당이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국민들이 제대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엄중한 계기다”면서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 간의 정부 여당, 윤석열 정권을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운을 뗀 뒤, 현 정부의 경제·안보·민생 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안보도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고, 좋아진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다.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휘어진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의 한반도 위기 조래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북한이 남한을 주적이라고 표시하고,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고,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면서 “적대하고, 대결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분위기가 국민들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얼마나 위협하게 만드는지를 정부 여당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십 년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목숨 바쳐서 만들어 왔던 민주주의도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공직자들이, 마치 그 권력이 자신 개인의 것인 양 국민들에게 함부로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다”면서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 행태나 성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 드릴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시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

가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김용만 대한민국의심정기법사업회 이사 8차 인제 환영식에 참석해서도 현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외교와 왜곡된 역사관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환영식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치운다든지, 육사의 독립영웅상을 철거한다든지, 심지어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는 황당무계한 일도 벌어지는 등 무도하고 퇴행하는 이 정권의 잘못을 분명히 문책해야 한다”며 “심판해서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고,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제대로 된 국민의 대리인으로 정신 차리고 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총선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진 ‘자객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공천한 거 없다. 경선한 걸 가지고 그러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비명계 집단 탈당, 선거제 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8일 만인 지난 10일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민주 총선 8호 인재 백범 증손자 김용만 영입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 투입할 ‘8호 인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37) 대한민국의심정기법사업회 이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이사에 대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순국선열들의 독립 정신 계승을 위한 행

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를 수호하고 미래를 밝혀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인재 환영식과 함께 김구 선생 사진을 걸고 제막식도 함께 열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조되는 장면을 부각해 이념·역사 논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이사는 이날 환영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 외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독립운동가를 폄하한 인사 영입 등 왜곡된 역사관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독립운동사를 이념 전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한·미 해조류 연구 프로젝트’ 이끌어낸 오윤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 “해조류 통해 탄소중립거점으로 전남의 바다, 이제 세계가 주목”

### 산업용 해조류 대량 양식 바이오 가스 등 에너지 생산 국가·산업·지역발전 기회



오윤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KIMST)은 17일 목포를 거쳐 해남으로 향하는 차안에서 미국과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 바다 가치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단순히 식용이나 양식용 해조류를 생산한 전남의 내해에서 한 발 나아가 외해에서 대형 해조류를 양산해 전세계적인 이슈인 탄소 중립, 바이오매스 에너지 양산 등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 첨단소재로서 해조류의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로, 석유화학을 대체하는 바이오화학, 바이오플라스틱, 헬스케어 소재, 고기맛을 내주는 대체육 소재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미국이 MARINER(Macroalgae Research Inspiring Novel Energy Resource, 새로운 에너지원에 영감을 주는 대형 해조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후 그는 정부부처, 관련 기관 등과 끈질긴 논의를 통해 협조·지원을 이끌어내고 이번 에블린 왕(Evelyn N. Wang) 미국 에너지고등연구계획원(ARPA-E) 원장 등 미국 정부인사들의 전남 방문, MOU(양해각서) 체결 등에 이르는 전과정을 주도해왔다.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 영문과를 나온 오 원장은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가 해양수산부에서부터 근무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항만국장, 해사안전국장, 해양정책실장을 거쳐 지난 2021년 11월 제7대 KIMST 원장에 올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프로젝트가 갖는 의의는.

▲이번 프로젝트는 외해에서의 산업용 해조류 대량양식으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의 양을 늘리는 한편, 생산된 해조류를 통해 바이오 가스·알코올·디젤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연구 과정에서는 다양한 첨단 기술과 시스템이 개발될 것이며, 이는 KIMST의 자산이자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기술과 시스템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 구체적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국가, 산업, 전남 등에 의미하는 것은.

▲해조류 외해 양식을 통한 산업용 해조류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 및 탄소흡수원으로서의 활용은 여러 측면에서 국가, 산업, 그리고 지역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구상의 연간 광합성량 중 약 90%가 해조류를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해조류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2030년까지 48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겠다는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 생산된 해조류를 통해 바이오 가스, 알코올, 디젤 등의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플라스틱과 같은 차세대 고부가가치 신소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와 기술 발전은 미래식량 창출을 넘어 의학, 생체의학, 생명공학부터 에너지 기술, 바이오 리파이너리, 탄소 흡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지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전남은 해조류 양식 어장이 8만5014ha에 이르며, 양식 어민들의 종자 생산 및 양식 기술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양식장이 내해에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외해에 해조류 대량 양식이 가능해 한·미 해조류 공동연구의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는 KIMST와 ARPA-E에 대해 설명한다면.

▲KIMST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미래 유망 기술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자율 운항선박, 디지털 해상교통물류, 그린십, 해양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그린디지털 4대 전략 기술’ 분야를 포함해 해양수산 전 분야에 모두 92개의 사업에 5111억원을 투자해 해양수산 분야 혁신과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ARPA-E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소속의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지난 2009년 설립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